

HRI 체어퍼슨노트

# CHAIRPERSON NOTE

2012.06.04 (통권402호)



## 경제이슈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하향조정  
4월 산업활동동향 소폭 개선

## 경영노트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 사회 트렌드

한국 국가경쟁력 2년 연속 22위

## 저널 브리프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정리 방법

## 洗心錄

이카루스의 패러독스(Icarus Paradox)

#### □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하향조정

- 5월 31일 미국 상무부는 소비지출 악화와 기업 재고투자 증가세 위축 등으로 1분기 경제성장률을 4월 추정치보다 하향조정 했음
  - GDP 성장률 수정치 : 2012년 1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는 4월 27일 발표된 추정치 2.2%보다 0.3%p 하락한 1.9%를 기록
  - 소비지출 :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은 5월 2.7%로 기존의 추정치보다 0.2%p 하락
  - 투자 : 기업들의 재고투자는 투자심리 위축으로 예상치인 695억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577억달러 증가에 그침
  
- 미국경제의 성장률이 더딘 회복을 나타내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긴축재정과 최근 고용지표의 둔화 등으로 인해 상반기 미국 경기 회복이 난망

#### □ 4월 산업활동동향 소폭 개선

-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는 전반적으로 전월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
  - 생산 : 광공업(0.9%), 서비스업(0.2%) 등이 증가했으나 공공행정(-1.0%), 건설업(-5.2%)이 감소하여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보합세
  - 소비 : 의복 등 준내구재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승용차를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0% 증가
  - 투자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투자가 소폭 감소하였지만 기계류 투자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4.5% 증가, 건설기성은 건축·토목투자가 모두 부진하면서 전월대비 -5.2% 감소
  
- 4월 산업활동동향은 주요 실물지표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선진국 경기의 회복 지연과 신흥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세를 낙관하기는 어려움

□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sup>1)</sup>

-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공급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변동성과 이에 대응한 유연한 전략에 대한 관심이 증대
  - 공급망 관리(SCM)는 기업이 가치사슬을 최적화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제품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의미
  - 생산·유통·판매 등의 개별 공급활동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설계, 관리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유연성과 대응성이 달라짐
  
- 부품·유통업체와의 협조 및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측면 등 다각도에서 SCM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플랫폼 공유와 모듈화를 통해 연구개발과 공급망을 통합하여 공통요인들을 미리 개발한 후 이를 조합해 다양한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함
  - 공급망 통합은 정보를 공유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인력 및 그들의 재능까지 공유하는 관점으로 진화하고 있음

< 공급망 관리 성공과 실패 사례 >

내 용	
<b>도요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GM 타도를 목표로 도입한 적시생산시스템(Just In Time)은 재고 감소, 생산성 향상, 불량감소 등 공급망 관리의 혁신을 일으킴</li> <li>- 도요타의 적시생산시스템은 평시에는 최적화된 공급 시스템이지만 유사시의 위기관리 능력에는 한계를 드러냄</li> <li>- 지난해 3월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자국에서 생산된 부품에만 의존하던 방식으로 인해 공장이 멈추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li> </ul>
<b>삼성전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CM과 R&amp;D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장트렌드를 빨리 읽고 시장 상황을 살피가며 연구개발 및 제품 출시의 시기를 조절함</li> <li>- 일본 전자업체는 꼼꼼한 매뉴얼을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에는 우위에 있지만 공급망 관리가 허술하였기 때문에 삼성 등 한국 전자업체에 추월당했다고 평가됨</li> </ul>

1) 본 자료는 매일경제신문의 ‘스티브 팔라지가 말하는 공급망 관리(2012년 5월 18일)’를 요약 정리함

□ 한국 국가경쟁력 2년 연속 22위<sup>2)</sup>

- IM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총 59개국 가운데 22위를 기록
  - 아시아 국가 중에는 6위로 지난해(8위)보다 두 계단 올랐고, G20 국가 중에는 전년(7위)보다 한 단계 오른 6위를 차지함
  - 우리나라의 IMD 순위는 1997년 30위에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41위까지 떨어졌었음
  - 이후 줄곧 30위권에 머물다가 2008년 31위, 2009년 27위, 2010년 23위로 올라선 뒤 두 해 연속 22위를 기록한 것임
- 4대 분야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기업 효율성이 26위에서 25위로 개선된 반면, 경제 성과(25위→27위), 정부 효율성(22위→25위)이 하락
  - 인프라 분야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20위를 유지
- 329개 세부항목 중 우리나라는 장기실업률(1위→1위), 고등교육 수확률(2위→2위) 등 26개 항목이 5위 이내 상위권에 포함
  - 반면 이민법의 외국인고용 제약(56위→56위), 노사관계 생산성(53위→53위) 등 25개 항목이 50위 이하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
  - IMD는 올해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로 ▷세계 재정위기 선제 대응 ▷인플레이션 완화 ▷일자리의 질 향상과 청년실업의 완화 ▷FTA 확대와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산업 강화 ▷사회자본을 포함한 투자의 확대 등 5가지를 제시
- 한편 전체 순위에서 홍콩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공동 1위였던 미국이 2위, 5위였던 스위스가 3위를 기록
  - 노르웨이(13위→8위)의 순위가 대폭 상승해 10위권에 진입했으며, UAE(28위→16위)도 20위권에 들어감
  -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19위→23위), 일본(26위→27위), 대만(6위→7위)은 모두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하락
  - 뉴질랜드(24위), 벨기에(25위), 일본(27위), 프랑스(29위) 등도 우리에게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됨

---

2) “한국 국가경쟁력 2년 연속 22위”(헤럴드경제, 2012.5.31)

□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정리 방법<sup>3)</sup>

- 정리를 통해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습관을 들이면 업무 생산성이 향상
  - 오바마 대통령(전화기 한 대와 서류 몇 장), 석유 재벌 록펠러(몇 가지 필기구) 등 성공한 CEO들은 책상이 깔끔했다는 공통점이 있음
  - GE, UPS 등 글로벌 회사들도 직원들에게 깨끗한 책상 정리를 강조

■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시간·정보·인맥 정리 방법

- ① 공간정리 : 책상 위엔 ‘진행 중’인 서류만 남길 것
  -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스트레스보다 일이 쌓이는 스트레스가 더 크며 이를 시각적으로 통제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서류를 일관되게 한쪽 방향(왼쪽)으로 놓는다면 시간이 지난 후 반대쪽(오른쪽) 서류는 사용하지 않는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음
- ② 시간정리 :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것
  - 자투리 시간에 메모나 회의록을 점검하면 업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야근과 주말 출근을 줄일 수 있음
  - 10분 내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처리하여 일의 개수를 줄이면 업무적체로 인한 피로도를 낮출 수 있음
- ③ 정보정리 : 정보 ‘저장’보다 ‘분류’에 초점을 맞출 것
  - 폴더 정리시 하위 폴더를 대·중·소 3단계 이상 만들지 말고, 파일명은 통일성을 주면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오프라인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상에서 한 번에 관리하고 수시로 분류하면 정보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④ 인맥정리 : ‘많은’ 인맥보다 ‘필요한’ 인맥을 관리할 것
  - 인맥에도 우선순위를 매겨 필수적 인맥·중요한 인맥·선택적 인맥 등으로 나누고 필요한 인맥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
  - 진정성을 가지고 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잘 관리하면 혈연·지연·학연 없이도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인맥을 형성할 수 있음

---

3) ‘잘나가고 싶다면 공간·정보·시간·인맥을 정돈하라’(한경비즈니스, 2012.06.06) 참조

## □ 이카루스의 패러독스(Icarus Paradox)

‘노키아, 소니, 코닥, GM, HP, 닌텐도...’의 공통점은 ? 한때 1등 기업으로서 소위 ‘이카루스의 패러독스(Icarus Paradox)’를 피해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는 깃털로 만든 날개를 밀랍으로 몸에 붙인 후 하늘을 날지만, 너무 높이 오른 탓에 태양열에 밀랍이 녹으면서 바닥으로 추락한 비운(悲運)의 주인공이다. 기업으로 치자면 한때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1등 기업이 혁신을 도외시한 채 스스로 만든 덫에 빠져 도태될 수 있음을 빗대어 말할 수 있다.

비슷한 예로 ‘강한 활의 끝’을 일컫는 ‘강노지말(強弩之末)’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한서(漢書)』의 「한안국전편(韓安國傳篇)」에 나오는 말로 처음에는 아무리 강하고 빠른 활이라도 끝에 가서는 힘이 미약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즉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한(漢)나라의 황제는 북쪽의 흉노가 화친을 요청해 오자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다. 왕희라는 중신은 당시 한나라의 강한 국력으로 아예 토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한안국이라는 중신은 “우리 군대가 강하다고 해도 수천리 길을 원정하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화살도 중국에는 힘이 없어져 비단조차 뚫지 못하는 법입니다. 토벌보다는 화친을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흉노와 화친하게 된다.

2001년 ‘포춘 글로벌 500’의 상위 100대 기업 중 52개 기업만이 2010년에도 100대 기업으로 남았다. 세계 유명 MBA의 성공사례로 회자되던 1등 기업들이 몰락하는 것은 과거 성공의 공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혁신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1등 기업은 ‘시장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기존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성공에서 비롯된 자만(自慢)도 한몫을 한다. 영원한 승자가 없는 변화의 시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든 ‘1등 기업의 저주’라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큰 성공은 작은 성공을 거듭한 결과이다.**

- 크리스토퍼 몰리(Christopher Morley)